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공간구성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고찰

- 고전적 디자인과 현대 디자인의 조화와 공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Configuration and Design Method in Pinakothek der Moderne

- Focused on the Harmony and Coexistence of the Classic and Modern Design -

박성호* / Park, Sung-Ho

장찬범*** / Jang, Chan-Bum

박무호** / Park, Moo-Ho

임채진**** / Lim, Che-Zinn

Abstract

The museum has been developed and changed variety by a social change and extention of its concept and social role. At modern times, context is a important fact in museum architecture in the city. These mean that museum architecture is combined with rather the relationship its surroundings than completion its constructing. Recently, Many studies were continu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function and role of museum has been changed variely by a social change. But most of them were centered on changing choronogical typology of museum layouts and classifing morphology of museum.

This study is to analyze harmony and connection about pinakothek der moderne with surrounding conditions and to know how to design its spacial configur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ly, it was confirmed that pinakothek der moderne came up with an idea which was design method about planning of modern museum in classic museums district. Seondly, it come under the modern museum but has classical spacial form and faculty. These mean that it is not only a solution about required functions but also a trial that is a significance for solving historical context and esteeming the classic space.

키워드 : 모데르네 피나코텍,¹⁾ 공간구성, 디자인방법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은 역사와 현실, 도시의 일반적 가치를 담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 형태를 지니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²⁾ 그리고 도시를 형성하는 건축 작품 역시 다양한 역사적 현실들에 대한 연속된 해석의 결과물이며, 현재도 변화중이거나 변화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예로 파리나 밀라노 등의 도시들은 물론 알베르티(L.B.Alberti)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Chiesa Di S.Maria Novella)이나 로마의 나보나 광장(Piazza Navona)등 유·무명의 수많은 도시 건축물들은 다양한 역사적 현실들이 그 변화의 과정에서 중첩·교차하여 만들어낸 오늘날의 도시이자 건축물 이며,

결과이다. 뮤지엄이라는 시설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본연의 기능과 역할로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배경을 전제로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뮤지엄의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는 뮤지엄의 연대기적 유형학의 측면과 형태학적 분류에 비중을 두어 진행되고 있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 뮌헨에 위치한 모데르네 피나코텍을 대상으로 대지(site)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연계, 평면의 형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와 더불어 모

1)독일 뮌헨의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모데르네 피나코텍은, 1992년 국제현상설계를 통해 슈테판 브라운 켈츠의 작품이 최종선정되어 2002년에 개관하였다.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을 중심으로 뮌헨내의 포화상태의 유물을 전시 및 수장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2)Aldo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The Mit Press, 1982

3)미술관 건축은 예술품을 보기위한 공간의 배열이라는 Philip Johnson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간구조의 문제는 미술관 건축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전시방식의 설정, 관람동선의 형성, 관람객의 경험 등 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더 나아가 미술관의 공간 구조는 시대적·상황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미술관에 대한 사회문화적 속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최윤정, 미술관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6호 통권 92호, 1996, p.30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디자인학박사

데르네 피나코텍에 적용된 디자인 방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모데르네 피나코텍(Pinakothek der Moderne, Munich, 1996-2002, Stephan Braunfels)을 중심으로 알테 피나코텍(Alte Pinakothek, Munich, 1826-36, L.von.Klenze)과 노이에 피나코텍(The Neue Pinakothek, Munich, 1981, Alexander von Branca)이 위치한 대지내에서 기존뮤지엄⁴⁾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접근 및 공간구성 방법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모데르네 피나코텍에 적용된 디자인 방법의 특성을 중심으로 건물의 배치, 진입부 구성, 시각적 축의 연결, 로툰다의 특성 등을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고전적⁵⁾ 디자인요소와 현대의 디자인요소가 조화, 연계시키기 위한 방법을 파악하며 현대 뮤지엄의 디자인요소로서 적용가능성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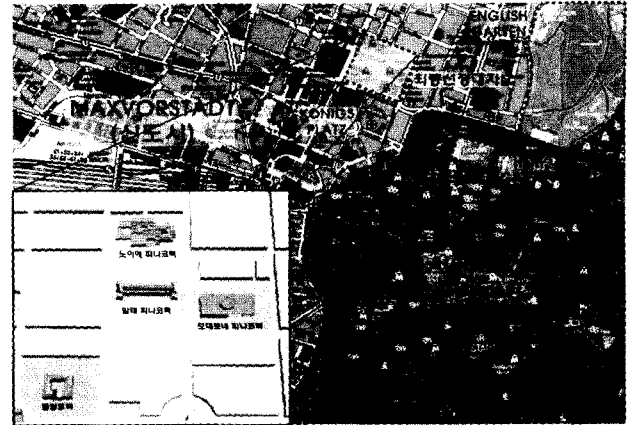
2. 기존뮤지엄과 연계 및 조화

2.1. 대지의 광역적·지역적 특성

뮤지엄의 장소성⁶⁾은 그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나 역사적인 도심에서 적합한 대지를 별도로 선정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20세기 초반부터 뮌헨에는 3번째 피나코텍(모데르네 피나코텍)을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의 포화상태의 유물들이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전시되지 못하고 보존을 위한 수장시설조차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데르네 피나코텍에 대한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약1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⁷⁾

모데르네 피나코텍이 위치한 대지는 광역적인 측면에서 신도시(Maxvorstadt)와 구도시(Altstadt)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신도시의 그리드체계의 가로와 구도시의 불규칙한 원형 가로사이

를 이어주는 뮌헨내에서는 유일하게 뮤지엄 지역(district)으로서 발전 전망이 주어진 대지이다.⁸⁾



<그림 1>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광역적, 지역적 위치

이러한 결절점에 위치한 지역중 4곳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그중 잉글리쉬가르텐(English Garten)과 호프가르텐(Hof Garten)은 구도심내에서 몇안되는 녹지지역으로 녹지의 훼손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 제외되었고, 코링스플라츠(Königs Platz)는 대 규모의 뮤지엄이 들어서기에는 너무 협소한 대지였다. 최종 선택된 대지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이 인접해있고, 북측의 대지로 증축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최종선정 되었다.

2.2. 현상 설계안의 지침

모데르네 피나코텍과 증축될 4번째 피나코텍의 계획을 위해 1992년에 현상설계를 공모하였다. 현상설계 지침중 주요한 2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약 60만점의 유물을 전시, 수장하게 될 모데르네 피나코텍이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러개의 건물군이 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전시공간과 수장공간의 계획 및 연결, 유물의 관리와도 직결된 문제이며 하나의 매스로 된 알테 피나코텍과 크게 두개의 매스 조합으로 된 노이에 피나코텍과의 조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두번째는 북서쪽으로는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을 면하고 남서쪽으로 뮌헨의 중심부와 접하고 있는 대지내에서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전면부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⁹⁾ 이는 단순히 창조적이고 흥미로운 디자인과정을 위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상설계공모안에서 아라타 이소자키(Arata Isozaki)의 계획안을 보면 알테 피나코텍의 축선에 맞추어 대지 전체를 채우는 거대한 원형매스를 제안하였다. 이는 인접해있는 알테 피나코

4)알테 피나코텍, 노이에 피나코텍을 지칭한다.

5)고전적(뮤지엄)이라 함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사이에 지어진 박물관으로써 볼레(Etienne Louis Boullée)의 박물관 건축계획안(1783)에서부터 듀랑(J. N. L. Durand)의 박물관건축 계획안(1802-09), 존 손(J. Soane)경의 Dulwich Galley(London, 1811~30), 쉰켈(K. F. Schinkel)의 Altes Museum(Berlin, 1923~30)과 클렌체(L. von Klenze)의 Alte-Pinakothek(Munich, 1826~36)까지를 말하며, 이 시기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건축의 prototype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평면적으로는 대칭형의 공간안에서 대공간과 중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양한 전시실 공간구성 방법의 제시 및 천장에 의한 전시실로의 자연광 유입은 현대 박물관 건축에 기여 한바가 크다. 이성훈, 박물관 건축공간 구성 특성의 변천에 관한연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 통권 제8호, 2002, p.103

6)본 논문에서의 장소성은 도시의 시각적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물리적 주변성과 도시의 문화적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역성, 이미지와 기억, 기능과 용도의 측면에서의 문화적 주변성을 의미한다.

7)Stephan Braunfels, Pinakothek der Moderne, Birkhäuser, 2002, 12, p.33

8)Ibid.,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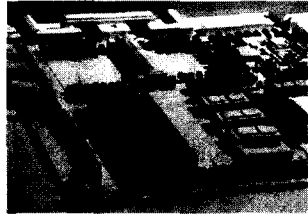
9)Stephan Braunfels, Pinakothek der Moderne, Birkhäuser, 2002, 12, p.35

택의 지역적 위치와 축을 고려하여 새로운 뮤지엄으로서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시도와 동시에 기존 뮤지엄과 차별화된 원형매스로 건축가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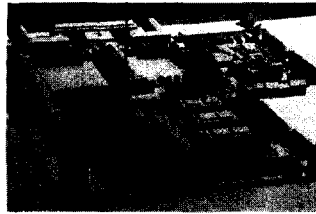
<그림 2> 아리타 이소자키의 계획안

스위스 건축가인 헤르조그와 데뮈롱(Herzog & de Meuron)은 하나의 큰 유리 매스내부에 각각의 뮤지엄시설들을 구성하여 단일 건물로 보이는 형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그들의 작업의 화두인 단순한 구조의 중첩, 개념적이며 미니멀적인 형태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제안은 크게 네가지 장르¹⁰⁾의 전시물이 전시될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프로그램상의 기능적인 면¹¹⁾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림 3> 헤르조그 엔데뮈롱의 계획안

당선작인 슈테판 브라운펠즈(Stephan Braunfels)의 안은 지역적으로는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을 면한 북서쪽과 뮌헨의 중심부를 향한 남동쪽 두면으로 부터 뮤지엄의 출입을 허용하면서 광역적으로



<그림 4> 슈테판 브라운펠즈의 계획안

는 신도시의 정확한 격자가로와 구도시의 불규칙한 원형가로를 시각적축으로 형성하였다. 이로써 피나코텍 단지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조화를 위한 결절점의 역할을 하게된다.

2.3. 피나코텍 건물군¹²⁾의 공간구성과 형태적 특성

(1)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의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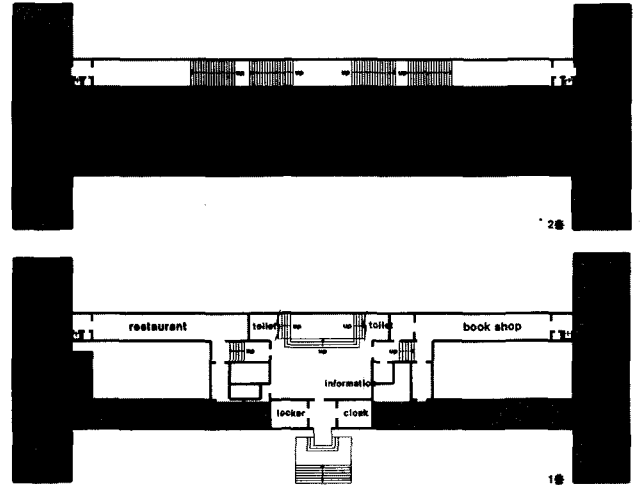
알테 피나코텍의 전시공간은 세개의 평행으로 놓인 긴 열의 공간이 25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다. 중앙열의 큰 공간들은 큰 천창의 구성과 주요 그림들의 전시를 위하여 계획되었고 북쪽열의 작은 공간들은 작은 그림들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실들

10)모데르네 쿤스트(모던아트), 아케텍추에 뮤지엄(건축), 노이에 잠롱(디자인), 그레피체 잠롱(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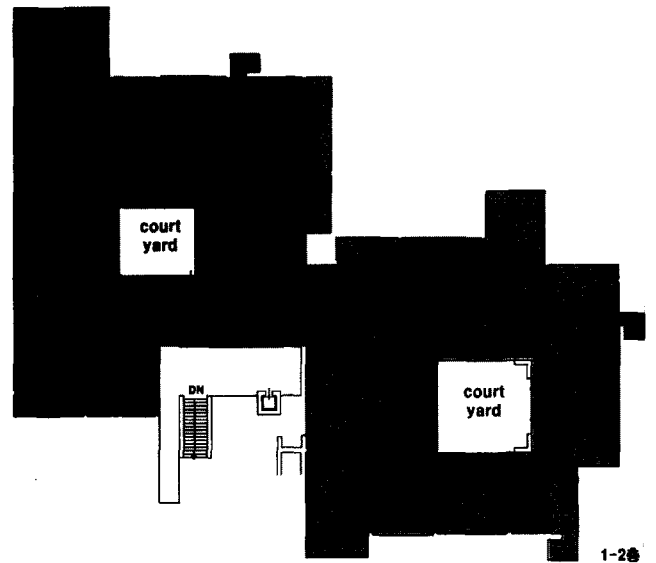
11)모던아트 전시품들을 가진 스타츠갤러리 모데르네 쿤스트(The Staatsgalerie moderne kunst)는 높고 천창을 통한 자연채광이 이루어지는 닫혀진 갤러리를 필요로 하고, 소장 유물의 대부분이 건축모형인 아키텍추에뮤지움(architektuemuuseum)은 약한 빛의 측면 채광을, 디자인전시품들을 가진 노이에 잠롱(The neue sammlung)은 인공조명술, 프린팅 패널이나 드로잉된 그래픽 관련 전시품들을 가진 그레피체 잠롱(The graphische sammlung)는 북쪽의 빛이 들어오는 전시공간과 연구복원 공간을 필요로 한다. - Stephan Braunfels, Pinakothek der Moderne, Birkhäuser, 2002, 12, p.37

12)알테 피나코텍, 노이에 피나코텍, 모데르네 피나코텍을 피나코텍 건물군으로 통합하여 피나코텍 건물군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이다. 남쪽의 열은 이동을 위한 복도공간으로서 관람객들이 이동하면서 각 전시공간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작은 그림과 큰 그림들의 분리된 전시공간과 복도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드는 전시공간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한 공간구성방법은 이후 많은 전시공간형태에서 재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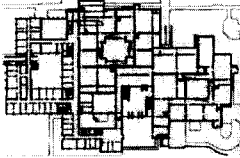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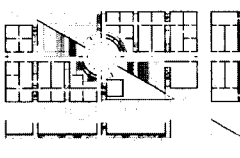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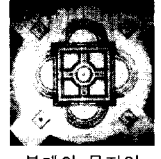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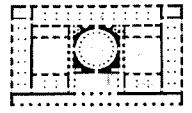
<그림 5> 알테 피나코텍 평면도



<그림 6> 노이에 피나코텍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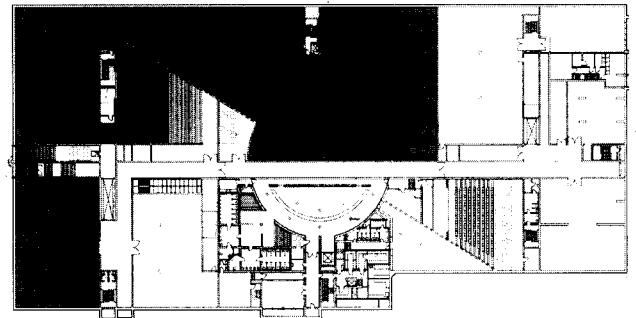
노이에 피나코텍의 전시공간은 중앙의 중정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으며 복도공간과 전시실이 평행하게 연결되어 선택적 연속관람동선을 가진 유형이다. 즉 이동과 관람동선의 분리로 관람객은 선택관람이 가능하며, 상설전시실에서는 뮤지엄의 기획동선에 의해 전시된 전시품들을 순서대로 관람하게 된다. 단위전시실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전시실들은 면적과 세장비의 차이로 단조로움을 없애고 대형의 회화 전시가 가능하다.

<표 1> 피나코텍 건물군의 형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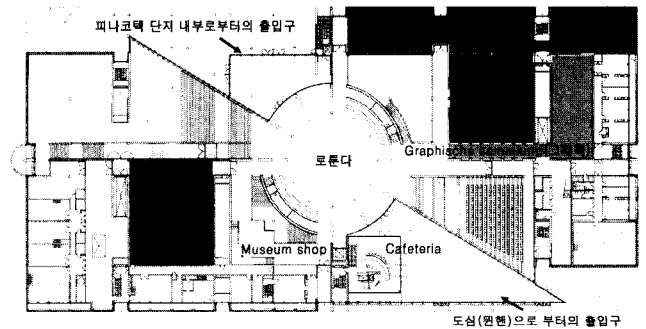
유지업 명칭	평면	형태적 특성	원형	전시내용
알테 피나코텍 (Alte Pinakothek, Munich, 1826-36, L.von.Klenze)	 ●연면적 : 4,800㎡ ●전시면적 : 2,732㎡	●극도로 제한된 선에 기본을 두고 외형은 플로렌스(Florence)의 회화 갤러리인 피티 팔레이스(Pitti Palace)와 같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궁전모델을 차용하였다. 내부 공간구성은 세개의 평행으로 놓인 긴 열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홀을 중심으로 분배된 전시실 형태는 자리적으로 인접하고 건립시기 또한 유사한 글립토텍(Glyptothek, 1800, L.von.Klenze)와 흡사하다.	 글립토텍 (Glyptothek)	●A뒤러, A 아트도르퍼를 중심으로 한 15~16세기 독일회화가 중심을 이루고 초기 네덜란드 회화, P.P.루벤스를 비롯한 17세기 플랑드르 회화, 이탈리아, 에스파냐, 프랑스 회화 등 작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노이에 피나코텍 (The Neue Pinakothek, Munich, 1981, Alexander von Branca)	 ●연면적 : 7,900㎡ ●전시면적 : 5,800㎡	●노이에 피나코텍의 경우 그 원형을 르 꼬르뷔제에 의해 디자인된 1929년의 Geneve Mundaneum과 1939년의 Musee a Croissance illimitee의 나선형 동선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의 순로형식은 정위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노이에 피나코텍 또한 중정은 중심공간으로써 평면상의 형태만 있을 뿐 대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문다나움 (Mundaneum)	●15~18세기 소장품이 많은 알테피나코텍에 대하여 18세기말~19세기 회화를 소장하고 있고, 루드비히 1세의 컬렉션을 바탕으로 프랑스, 영국의 19세기 회화, 독일의 20세기 회화 및 조각이 추가되어 소장하고 있다.
모데르네 피나코텍 (Pinakothek der Moderne, Munich, 1996-2002, Stephan Braunfels)	 ●연면적 : 29,195㎡ ●전시면적 : 12,000㎡	●알테스 유지업은 볼레와 류앙의 원형을 차용하고 있다. 주변 전시실과 원형의 중앙입구공간과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이는 외부에서 면 처리된 것처럼 보이게 한 볼레의 경우와 동일하다. 모데르네 피나코텍은 형태적으로는 볼레-쉬켈-클렌제의 연장선상에서 있으나 이전의 상징적이고 신성스런 공간이 아닌 집회, 동선의 중심, 전시가능, 진입부의 기능, 정위판단의 기능등 현대 유지업의 요구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볼레의 유지업  알테스 유지업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을 중심으로 뮌헨내의 박물관들의 포화 상태의 유물을 전시 및 수장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20세기이후의 크게 그래픽, 건축, 디자인, 모던아트와 4가지 장르로 구성된 약60만점의 유물을 소장하고있고 약12,000㎡의 면적에 전시가 가능한 대형박물관이다.

(2)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공간구성¹³⁾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최상층 전시공간은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과 같이 회화의 전시를 위해 자연채광을 이용하여 백색의 중성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현대 뮤지엄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써 벽에 채색이 되어있는 고전적인 뮤지엄 유형인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과의 시대적인 구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공간을 중심으로 전시실들이 구성되고 전시실들이 단위전시공간들로 분화되어 있는 룸투룸(Room To Room)형식¹⁴⁾의 전시실 형태는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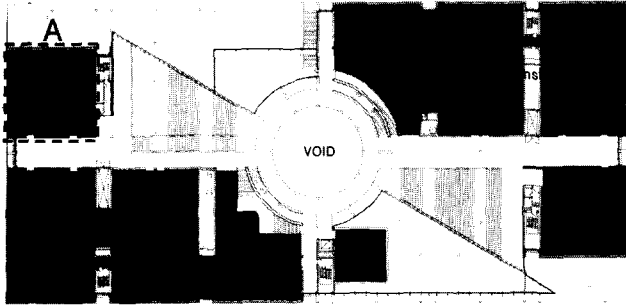
<그림 7> 모데르네 피나코텍 지하1층 평면도



<그림 8> 모데르네 피나코텍 지상1층 평면도

13)모데르네 피나코텍의 층별구성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관람객의 출입이 허용되는 전시 및 부대시설층의 평면도를 삼입하였다.

14)전시내용의 연결을 의도하거나 동선유도의 목적으로 전시실과 전시실이 직접연결된 통과형의 형식으로 일렬로 전시실이 배치될 경우 감상할 전시의 양을 예측할 수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람이 가능하다. 유럽의 고전건축을 이용한 궁전형태의 미술관에 많은 형식이다. 임채진 외, MED, 박물관의 전시·환경계획 지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1997, 12, p.107



<그림 9> 모데르네 피나코텍 지상3층 평면도

모데르네 피나코텍은 10m의 격자 그리드를 이용하여 모듈(module)에 따라 계획되었다. 대지의 여건¹⁵⁾에 따라 설정된 사선의 축과 로툰다의 결합으로 인해 생겨나는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예로 강의실은 도시동남축의 진입부 사다리꼴의 주계단아래에 만들어져 단면상의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를 최소화하였다. 동시에 원형홀의 하부의 반은 레벨차를 이용한 전시실로 계획하고, 나머지 반은 물품보관소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전시실의 하부에는 보석 전시관을 계획하여 남겨진 공간이나 쓸모없는 공간의 발생을 최대한 줄였다.

3.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디자인 방법 고찰

3.1. 알테 피나코텍과의 관계성

모데르네 피나코텍은 알테 피나코텍의 축에 더 강한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새로운 축¹⁶⁾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상에서 요구된 기능 중 그 일부¹⁷⁾를 지하에 계획함으로써 알테 피나코텍의 높이와 조화를 이루었다. 이것은 알테 피나코텍이 뮌헨의 중심으로써의 영원히 지배적인 위치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향후 증축될 피나코텍을 포함한 피나코텍 건물군들은 도시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¹⁸⁾

이에 대해 슈테판 브라운펠즈는 의식적으로 연결이라는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기능을 강조하는 양쪽 측면을 모두 개방되게 계획하였다. 주 진입부는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이 위치한 북서쪽을 향한 큰 로지아(loggia) 이지만 뮌헨의 도시 중심부에서 온 관람객들은 동남쪽의 로지아를 따라서 박물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그것은 모데르네 피나코텍이 피나코텍 건물군 전체의 입구 역할을 하고 이 대지가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15)2장 2.1 대지의 광역적·지역적 특성 참조

16)<그림 10>의 B

17)노이에 컬렉션(The neue sammlung)의 디자인 전시품 전시공간은 지하에 계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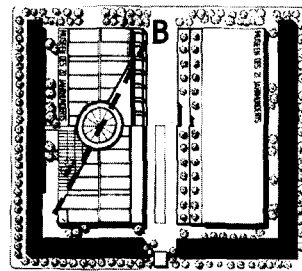
18)Stephan Braunfels, Pinakothek der Moderne, Birkhäuser, 2002, 12, p.51

3.2. 레이어(layer)의 구성적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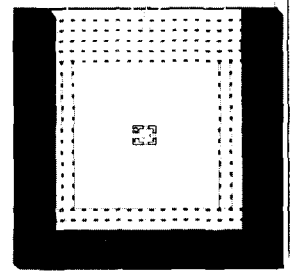
모데르네 피나코텍은 증축될 L형의 윙(wing)이 완성됨으로써 완성된다. 이 형태는 회교도 궁전 사원의 전통 배치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공 의식 건물을 위한 신성한 공간의 연속을 재해석한 것이다.

외부공간은 구조물이 들어서지 않은 단순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내·외부를 연결시키고 이용자에게 영역을 인식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설정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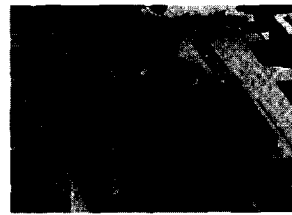
특히 뮤지엄에서 나타나는 외부공간은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내부공간의 연속적 관계가 외부공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뮤지엄의 특성상 미술품, 유물을 관람하는 관람자의 심리적 상황을 외부공간의 진입부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건축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공간자체가 미술품, 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외부공간은 단순히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며, 고유영역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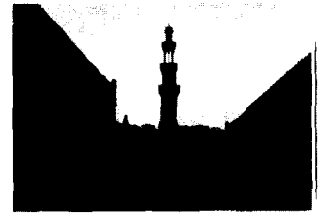
<그림 10> 모데르네 피나코텍 배치도



<그림 11> ibn tulun mosque



<그림 12> 모데르네 피나코텍



<그림 13> ibn tulun mosque

3.3. 진입부 원형의 재현

진입부 구성에 있어서 슈테판 브라운펠즈는 고전건축의 중심에서 현대 박물관의 입구를 구성하기 위해 알테 피나코텍의 직선 공간과 계획적으로 대조되게 하였다. 그 형태적 특징은 수복전의 알테 피나코텍의 초기 진입부 형태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 이는 내부에서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이 있는 북서쪽 출입구의 기둥들을 통한 조망은 알테스 뮤지엄 내부에서 입구부분 열주를 통해 외부로 향한 조망과 흡사하고, 또한 클렌체(L. Von Klenze)의 초기 성당박물관이 주는 조망과도 유사하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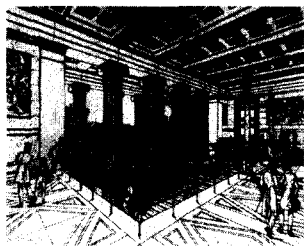


<그림 14> 알테피나코텍의 초기
진입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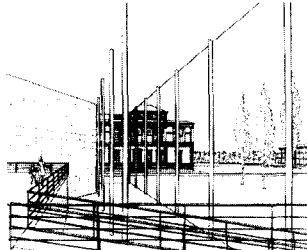


<그림 15>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진입부

진입부의 기둥들은 벽, 천정과 분리되어 건물의 구조부와는 별개로 의장적인 의미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고전적인 조형의 특징인 극히 정교한 음영묘사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열주에 비치는 빛은 빛과 그림자의 대비 효과를 만들어 내고, 건물의 내부에서 보면 어둠속에 들어와 밝게 비추는 빛이 된다. 이러한 형태는 본 뮤지엄에서 현대적인 형태로 이미 시도되었다.



<그림 16> 알테스 뮤지엄 2층에서
진입부 열주를 통한 외부조망 드로잉



<그림 17> 모데르네 피나코텍 2층에서
진입부 열주를 통한 외부조망 드로잉

3.4. 시각적 축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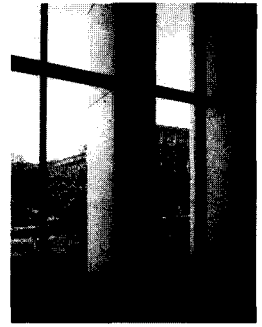
북서쪽과 동남쪽의 출입구는 중앙의 로톤다를 통하여 상호 개방되어 시각적 축을 형성한다. 이는 피나코텍 건물군 내에서 연결이라는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개념을 더욱 강하게 한다. 이러한 시각적 축의 연결은 재료의 측면에서 유리를 통해 보여지는 건축적 요소들, 인간과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물리적, 문화적 부산물들을 시각적으로 연결하여 우리가 속한 문화의 단편들을 계속 연출하게 한다.²⁰⁾ 기능적측면에서 보면 사선의 축에 의해 발생하는 진입부의 모서리 공간을 밝게 비추어 공간이용적인 측면에서 시각적 데드스페이스(deadspace)를 줄여준다.

전시실들 사이의 개구부는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을 비롯하여 도시의 전망을 하나의 전시물으로써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위환경의 시각적인 내부유입을 통하여 현대 뮤지엄 내에서 관람자가 과거에 대한 것과 현재의 것에 대한 교감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건물과 기존의 건물 그리고 외부

환경 사이에서 느끼는 이질감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18> 카페테리아에서
본 외부



<그림 19> 내부에선 보이는
알테 피나코텍

3.5. 공간의 개방성

(1) 수평적 공간의 개방성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보이는 큐빅의 형태와는 다르게 건물 내부의 구성은 개방성을 가진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두개의 출입구에서 중앙의 로톤다에 들어서면 동서로 뻗어 있는 긴 복도를 인지하게 된다. 이는 기능적으로 전시의 시작점이자 마지막점으로 관람객에게 전시공간 전체를 파악하게 함과 동시에 동선분배의 중심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로톤다와 연결된 긴 복도는 여러 분류로 나누어진 전시 영역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관람객이 관람 목적에 따라 선택 관람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0> 내부에서 보이는
노이에 피나코텍



<그림 21>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주계단부

(2) 수직적 공간의 개방성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계단은 건축공간을 통합하기 위한 장치이며 체험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오픈시킨 공간이다. 계단 주위로 오픈공간, 로톤다, 보이드공간 등 다양한 공간구성으로 시각적 체험과 공간적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계단의 개방성은 내·외부 영역을 시각적, 기능적으로 확장,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경험을 다양하게 만들며 전체 공간의 인식도를 높여준다. 특히 건물전체를 수직적으로 한번에 이어주는 사선의 계단은 내부에서 시각적인 확장을 부여한다. 즉 공간

19)Ibid.,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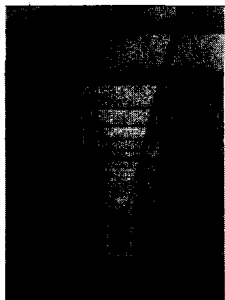
20)김준성, 현대건축에서의 유리의 사용과 그 의미, 건축문화 140호, 1993, p.167

상호간의 연결, 관통,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도는 소위 열려진 공간(open space)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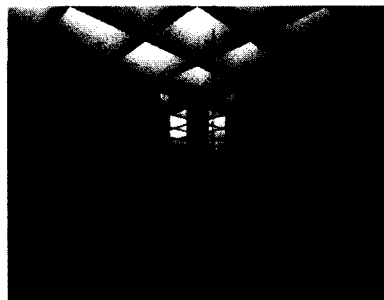
3.6. 전시공간의 다양성

피나코텍의 전시공간은 내부의 다른 공간들과는 달리 가능한 절제된 모습을 보여준다.

각 단위전시공간²¹⁾은 작가별, 학과별로 분류되어 전시되고 있으며, 모든 전시실은 10m×10m의 고정된 폭은 기준으로 다양한 조합을 구성하고, 개구부의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공간마다의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리고 일부 전시실은 진입·출구의 위치를 대각선상에 위치시킴으로써 대각선적 확장에 의한 실제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인식되게 한다. 또한 전시실의 모서리 부분은 기둥 주위에 세일 모양²²⁾의 전시공간의 배치로 연속적인 그림들의 배열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18, 21> 그리고 전시실 사이의 벽들은 단순 구획의 요소로써 상인방(上引枋)을 생략하여 공간 내부의 연속성을 유도하여 전시실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임을 강조하고, 천정과 맞닿는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수직적으로 공간을 확장되게 하며 공간간의 상호관입을 가능하게 한다.<그림 17> 이는 관람자의 닫힌 공간내에서 막혀 있다는 느낌을 덜어준다.



<그림 22> 전시공간 사이의 출입구



<그림 23> 세일모양의 전시공간(그림 9-A부분)

모데르네 피나코텍은 천창아래의 격자를 이용해 전시공간은 천창의 자연 채광을 일정한 조도의 빛으로 여과하여 직사광선으로 인한 전시물의 손상을 막고 관람에 적합한 전시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화재 및 도난 방지 시스템 등의 설비 시스템은 전시실 사이공간에 위치하여 백색의 벽, 테라초 바닥, 천창을 통해 조명되는 중성적인 공간이 만들어 진다.

3.7. 로툰다에 의한 중심성 강조

(1) 중심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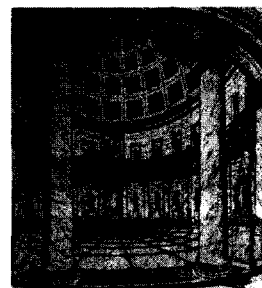
모데르네 피나코텍은 중앙의 대공간인 로툰다를 중심으로

21)단위전시공간이란 박물관 전시시설 중 바닥, 벽, 천정으로 한정지을 수 있는 공간이다.

22)본 연구에서 세일모양이란 <그림 9>의 A부분과 같이 모서리를 이동공간으로 계획함으로써 전시벽면을 넓게 쓸 수 있는 평면형태를 지칭한다.

하는 평면형태로써 중심성 수용구조이며 룸투룸(Room-To-Room)형식의 전시실로 이루어진 단속공간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중심성 수용구조의 유형은 근대 초기의 미술관의 원형인 불레(Boulee)의 계획안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여기서 중심성과 전시공간의 연속성이 제시되었다. 이후 전체 공간구조에 있어서의 중심성은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으나. 듀랑(Durand), 쉐켈(Shinkel), 클렌제(Klenze)등을 거치면서 전시공간은 연속적인 구조에서 개별적인 공간구조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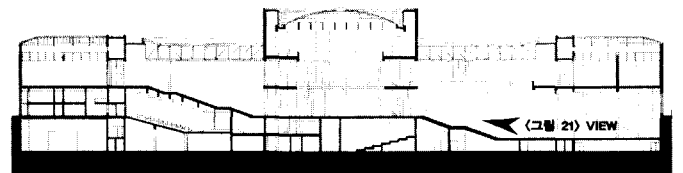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로툰다는 건물의 기하학적 중심으로 다층 높이의 대형 개방공간의 형태를 취한다. 그 형태 또한 과거의 원형을 고수하고 있다.<그림 19, 20> 그리고 중심공간은 전시 관람보다는 휴식이나 대기 등 보다 집합적인 경험을 나누는 장소로써 유지시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보인다. 실제로 중심공간 주변에 다수의 관람객이 모여드는 수직동선과 복도가 둘러싸고 있어 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도심지 광장이나 시장을 연상시킨다.



<그림 24> 알테스 뮤지움의 로툰다



<그림 25>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로툰다



<그림 26> 모데르네 피나코텍 주단면도

모데르네 피나코텍에서 이러한 중심공간의 상징적 의미는 쉐켈이 자신의 로툰다를 '성소'라고 호칭한 배경과도 연결되는 것이며, 불레의 미술관에서부터 내려오던 중심성의 전통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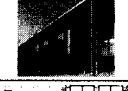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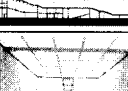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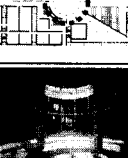
(2) 형태적 특성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로툰다는 불레(Boulee)의 1783년 이상적 박물관을 위한 디자인에서 나타난 실제들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면처리가 된 드럼모양의 로툰다에서 볼 수 있는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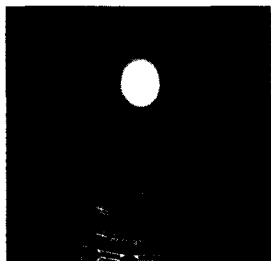
23)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6호 통권92호, 1996, 6

24)임채진 외, 21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체육부, 1997, 12,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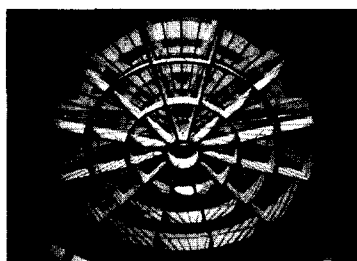
<표 2>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기존 뮤지엄과의 조화와 연계, 디자인 방법의 정리

항 목	내 용 및 사 례		해 결 방 안
기존의 뮤지엄과의 연계 및 조화	대지의 광역적·지역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적으로 신도시와 구도시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지역적으로는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과 인접하여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테 피나코텍의 축에 더 강한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새로운 축을 설정하였고 그 축은 시각적 개방으로 원형의 신도시와 구도시를 연결한다.
	현상설계안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60만점의 유물을 전시, 수장하게 될 모데르네 피나코텍이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것이 적합하지, 여러개의 건물군이 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북서쪽으로는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을 면하고 남서쪽으로 원형의 중심부와 접하고 있는 대지내에서 진입부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매스로 전시·수장 기능의 해결을 위해 유물특성에 따른 전시환경을 고려하여 계획 중앙의 로툰다를 중심으로 양측 모두 개방하며 출입구는 기존 뮤지엄과 면한 북서쪽과 원형을 향한 남서쪽 두곳에서 진입을 허용한다.
디자인 방법의 고찰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과의 관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이라는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기능을 강조하여 양측면을 모두 개방되게 계획하였고, 프로그램상의 일부를 지하에 계획함으로써 알테 피나코텍과의 높이를 맞추었다.
	레이어의 구성적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외부공간은 단순히 이용자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만이 아닌, 고유의 영역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작용한다. 이것은 관람자의 심리적 상황을 외부 진입공간에서부터 설정한다.
	진입부 원형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대전전의 알테 피나코텍의 초기 진입부 형태를 원형으로 하였고, 외부에서의 조망은 알테스 뮤지엄 조망과 유사하다.
	시각적 축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적 축의 연결을 통해 연결이라는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기능을 강조하고, 전시실들 사이의 창들은 기존 뮤지엄들과의 시각적 연결의 역할을 하여 이질감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공간의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보이는 큐빅의 형태와는 다르게 건물 내부의 구성은 로툰다와 전층을 한번에 이어주는 사선계단의 결합으로 수직·수평적 공간 모두 개방적 성격을 가진다.
	전시공간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실의 형태는 림투룸 형식의 고전적 전시공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다양한 조합으로 단조로움을 없앴고, 개구부의 위치변화와 세일모양의 전시공간배치와 중성적 전시공간의 구성으로 다양한 전시공간의 형태를 보여준다.
	로툰다 (중심성 강조, 형태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툰다는 건물의 기하학적 중심으로 다층 높이의 대형 개방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 형태또한 과거의 원형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상징적의미는 권력이 자신의 로툰다를 '성소'라고 호칭한 배경과도 연결되는 것이며, 불레의 미술관에서부터 내려오던 중심성의 전통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된 것이다. 로마의 판테온과 같은 넓이이고 단면 비례 또한 같아서 거의 유사한 체적을 가진다. 또한 불레의 박물관 디자인에서 나타난 실제들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면처리가 된 드럼 모양의 로툰다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그림 26, 29> 판테온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는 로툰다 상부 중앙의 천창을 통한 빛은 공간의 중심을 만들어 내고 이로 인해 로툰다는 건축물 전체의 중심이 되는 힘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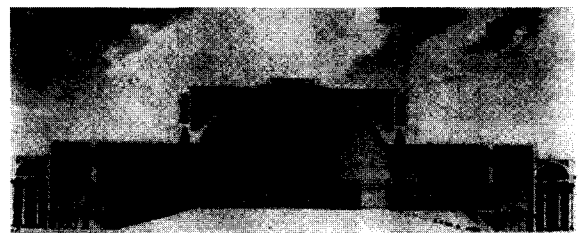
<그림 27> 판테온의 로툰다 상부



<그림 28>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로툰다 상부

알테 피나코텍은 궁전형식의 일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어 중앙부의 홀은 존재하지만 이를 전형적인 형태의 대공간으로 분류하긴 힘들다. 노이에 피나코텍의 경우 중정의 형태로 중앙의 대공간의 개념이 상징적으로 계획되었지만 이는 형태적인 특성

일 뿐 기능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모데르네 피나코텍에서의 로툰다는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인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의 로툰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9> 불레의 이상적 박물관을 위한 디자인 단면도

4. 결론

뮤지엄은 시대적 변화와 개념의 확대, 기능·사회적 역할의 확대 등으로 인해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쳐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 도시입지의 뮤지엄 건축이 가지는 중요한 개념의 하나는

바로 도시의 장소성에 충실하는 것이며 이는 도시를 중심으로 건축을 발전시킨다는 특성에 의해 개연적인 개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데르네 피나코텍을 대상으로 기존 뮤지엄과의 조화와 연계, 고전적 디자인 요소와 현대디자인이 공존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을 분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첫째,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경우 공간구성에 있어서 건축가는 자신의 개성의 표현보다는 알데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과의 공간적, 시각적 연계를 이루고, 본래의 프로그램에 충실함으로써 뮤지엄 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고전적 뮤지엄 단지 내에서 현대 뮤지엄의 공간디자인 설정에 관한 일정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모데르네 피나코텍은 건립시기로 보면 현대 뮤지엄의 형태이기는 하나 고전적 형태, 기능과 상호 작용하며 관람객에게 다양한 공간적, 시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이것은 단순히 기능적 요구를 스페이스 프로그램(space program)으로 해결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느끼고 친숙한 공간적 경험을 존중하고 역사적 장소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향후 고전적 디자인 요소들의 현대 박물관에 적용된 사례들을 자료화하고 목록화하여 그것들의 사회, 문화적, 형태적성격 등을 가능한 한 정확히 인식하고 규명하려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임채진 외, MED. 박물관의 전시·환경계획지침에 관한 연구,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1997, 12
2. 임채진 외, 21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체육부, 1997, 12
3. 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6호, 1996, 6
4. 최윤경, The Spatial Structure of Exploration and Encounter in Museum Layouts, Geotgia Institute of Technology, 1991, 6
5. 서상우, 복합박물관 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적 연구, 한국박물관학회는 문집 통권 제5호, 2001
6. 이관석, 현대 박물관 건축에서 고전적 전시공간이 재현된 배경과 그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11호, 2001, 11
7. 김용승, 박물관 건축에서의 대공간의 의미와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1권 2호, 2001, 10
8. 문정목, 미술관 전시공간 구조의 시대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론, 2004, 6
9. Stephan Braunfels, Pinakothek der Moderne, Birkhäuser, 2002, 12
10. Baumstark, Reinhold, Alte Pinakothek, Munich, Antique Collectors Club, 2001, 5
11. Lenz, Christian, The Neue Pinakothek, Munich, Antique Collectors Club, 2003, 11
12. Levin, M.D, The Modern Museum, Dvir Publishing house, Jerusalem, 1983
13. Carol Duncan, Civilizing Rituals, Routledge, 1995
14. Nicholas Serota, Experience or Interpretation, thames & hudson, 2000
15. 조은실, 박물관 관람공간구성의 유형분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론, 1998

16. 김낙동, 현대적 박물관의 전시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85.
17. 김용승, The Social Aspects of Museum Building, The 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 석론 1989
18. 이한기, 미술관 건축의 접근성 증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론, 1991
19. 김용승, An Approach to Evaluating Exhibition Space in Art Galleries, Ohio State University, 박론, 1994.
20. 임채진, 박물관 세대론, 공간, 1989. 9.
21. 김홍기, 박물관 전시부분 실내환경 디자인의 시지각 요소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론, 1994.
22. 서상우,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 기문당, 1995.
23. Emma Barker, Comtemporary cultures of Display, Yale University press, 1999
24. 최윤경,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2003
25. Aldo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The Mit Press, 1992

<접수 : 2004. 6. 30>